

# AN ANALYSIS OF GOD'S PLAN OF REDEMPTION FROM A CRIMINAL JUSTICE PERSPECTIVE - 논평

김정우(숭실대 법학 Ph.D, 백석신학대학원 M.Div 졸업)

본 논문은 '법률가의 관점으로 본 성서'라는 큰 그림 속에서 '형사 사법 체계의 관점'으로 본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은 '형사법 절차'라는 '법적인 프레임'이나, 논문의 내용은 '신학' 특히 조직신학의 분야 중 '구원론'과 관계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 1. 내용적인 부분

### 1. 논문의 주요 흐름과 전개

사회에서 범죄(crime)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듯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의 죄(sin)를 범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세상의 형사 재판절차 진행과정과 비슷한 방식으로 인간을 다루신다는 면에 착안함.

- (1)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에 대해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형벌을 선고
- (2) 하나님의 심문 : 에덴동산(하나님의 재판 법정)
- (3)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신 것:  
미국 형사법 체계에 내재된 due process의 본질
- (4)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 옆에 있던 두 범죄자 중 한 명은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의 형벌이 취소된 것이라 볼 수 있음
- (5) 이 세상에서의 현재의 시간들 : 신적인 집행의 유예 기간
- (6) 세상의 형사 사법체계에서의 사면(pardon)과 하나님의 사면의 차이

### 2. 논문의 독창성과 참신성

성서와 법을 연결하여 연구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성서에 나오는 법(biblical law) 특히 모세오경의 내용들을 현대의 법적인 개념들과 연결시킨 부분이 주된 흐름을 형성했는데, 이 논문은 구약의 창세기의 원죄 사건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결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세상의 형사 사법체계의 관점 내

지는 형사재판절차에 따라 조망한 점이 흥미롭고 참신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 3. 보완이 필요한 점

(1) 성서의 본문 내용을 장구한 역사적 갭(gap)을 초월해 곧바로 현행법상의 현대적 용어의 의미와 직접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무리가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좀 더 풍부한 설명이 포함된 논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서와 현대의 법해석을 연결하는 신학주석이나 법학 문헌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법학분야로 논문이 쓰여지려면 법적인 논증이 신학적인 논증보다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criminal justice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범죄에 대해서 그것에 상응하는 댓가나 처벌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관점과 하나님의 구속계획과의 상관성을 밝힐 때 좀 더 정교한 논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결론 부분에서 이러한 연구의 의의는 교훈적일 뿐 아니라 형사절차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의 구속 여정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어떻게 이용되어왔는가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3) 예수의 죽음과 하나님의 창조의 선후 관계

Jesus was slain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 the Lamb that was slain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NIV) (요한계시록 13장 8절, 13쪽, 각주 63)  
마찬가지 논리로 결론 부분의 Jesus' death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 Jesus' death after the foundation of the world

#### (4) 법의 정치적 용도와 신학적 용도의 구분

각주 10번에서 세상의 1)(세상의) 법제도가 선을 증진하고 악을 처벌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로마서 13장 1-5절의 내용을 언급한 후 이것을 곧 2)(율)법이 곧 인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전자는 종교개혁자들의 기준에 의하면 2)정치적 용도에 해당하고 후자는 2)신학적 용도에 해당되어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각주 78에서 극형반대론자들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죽음이라는 형벌을 부과한 것은 적정성을 넘은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자는 그들은 제한된 인간의 이성적 관점에서만 본다는 점으로 이사야서 55장 8-9절을 근거로 그들의 견해를 부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기독교적 전제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신학 논문이 아닌 이상 법적인 관점에서 일부러 가정해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6) 각주 92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라는 내용은 불필요.

#### 4. 법률 용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

(1) Larceny

(2) Criminal conversion

(3) Arraignment

죄상인부절차(罪狀認否節次) 또는 기소사실인부절차(起訴事實認否節次). 영미법상의 형사소송 절차의 하나이다.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장(公訴狀)을 읽어주고,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물어 피고인이 유죄임을 시인(是認)하면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즉시 유죄판결을 할 수 있고, 무죄임을 주장하면 비로소 증거조사를 하게 되는 제도이다.<sup>1)</sup>

(4) plea bargain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경감받거나 조정하는 제도로, 주로 미국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제도다.<sup>2)</sup>

#### 5. 보충 설명이 필요한 신학적 용어들

(1) redemption이라는 신학 용어를 현대 법률적 용어의 의미로 해석했는데 이 개념의 법적인 측면은 현대적 법 개념보다 조직신학 문헌에서 속죄(atonement) 이론의 영역에서 법적인 개념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논의되어 온 부분이 있는데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ransom theory, satisfaction theory, penal-substitution theory 등.

(2) imputation (of sin)

---

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4581&cid=40942&categoryId=31721> (2016.10.27. 검색)

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13041&cid=40942&categoryId=31693> (2016.10.27. 검색)

## II. 형식적인 부분

1. 본문의 내용이 성서의 본문을 그대로 재진술하거나 해당 성서 본문에 근거가 있는 경우라도 각주의 형태로 처리하기보다는 성서 구절을 본문의 내용 옆에 괄호형태로 병기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술논문에서 각주는 가능한 일반적 학술문헌들을 중심으로 인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각주에 언급된 판례나 문헌의 내용들이 충분히 소개되지 않고, 판례 제목이나 문헌의 제목만 표기된 경우가 적지 않은데, 필요에 따라 판례나 문헌의 내용들을 직접 소개하여 본문 안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각주 9,35,86,95) 특히 오래된 판례(1833,1866,1883,1895)에 대해서는 간단한 개요적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각주의 번호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누락 또는 오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5,9,15, 22(Genesis 1:28),38, 50, 59(Numbers 23:19), 71,85(John),102,103.

4. 각주 16과 20 중복, 각주 66은 각주 25와 57과 중복, 각주 86과 95 중복

5. 참고문헌 7번 판례 연도 누락